

靑年 - 1924. 08. 01.

進化論으로 본 靈魂不滅

具滋玉

米國산다란드氏의 講演한바를 略譯하여 登載함

여러분 今夜 여러분 압해 「進化論으로 見한 靈魂不滅」에 對하여 講演을 해달나난 付托을 맞았습니다. 死後에난 如何히 되난지 死後生活이 잇난지 업난지 或은 永遠히 사난 것인지 아닌지 하난 이 問題난 가장 重大한 問題임이다. 우리난 이 問題에 對하여 自問自答해야되겡습니다. 그래서 自己난 果然不滅하난 것인지 쏘난 自己의 周圍에 有한 自己의 尊敬하난 者 쏘난 敬愛하난 者이 自己와 갓치 不滅하난 것인지 滅亡하야 업서 지난 것인지 생각지는 아니치 못하겡습니다. 靈魂不滅의 問題난 決코 小小한 問題가 아니요. 非常히 重大한 問題이요. 쏘난 人生으로 此世에 生한 以上에난 만다시 研究치 아니치 못할 問題임이다. 그러나 動物은 그럿치 못합니다. 動物은 이런 問題을 생각지 못합니다. 그러나 人生은 늙어갑니다. 이것을 생각지 야닐 수 업습니다. 이 問題를 생각하고 아니한다 함은 人生과 動物의 區別이올시다. 世界人種 中에 쏘난 民族中에서 이 靈魂不滅에 對하여 생각지 아니하난 人은 업슬줄노 압니다. 勿論研究의 強弱은 잇지만은 如何한 人種이던지 死로 向하야가난대 우리 生命이 繼續하기를 望하난 者도 有하며 想像도하야 갓버하난 者난 엇더한 民族이던지 다 잇습니다. 쏘난 이것을 世界에 多種한 사람들이 証明하고자하야 多方面으로 証明하난 것이 잇난中 今에 余난 進化론상으로 此를 証明해보고자 합니다.

基督教徒난 此問題를 研究할 時난 聖書와 基督에게 向합니다. 舊約全書에도 處々에 靈魂不滅에 對하여 暗示가 有하며 또 一步를 進하야 新約全書에 對하여 每頁에 此重大한 問題가 記錄되야잇습니다. 基督이 얼마나 此問題에 對하여 研究했것스며 쏘난 自己自身の 生活로써 此問題를 解釋한것이 明白합니다. 新約에 耶穌가 靈魂不滅에 對하여 多數한 敎訓이 잇습니다. 一例를 舉하건대 天國에난 吾人이 住居할곳이 多하다 하앗스니 卽 此地上吾人의 生活은 그만은 居住處의 一部分됨에 不過합니다. 此第一의 生活이 終한 後에난 天國에 廣大한 居住處가 잇서 吾人이오. 기를 待하고 잇습니다. 耶穌의

死난 卽 吾人을 爲하여 死한다 함을 敎示하얏습니다. 使徒바울은 다만 人間의 生活이 永遠不滅하다 함만 敎示할 뿐아니라 永遠生活은 吾人의 地上生活과 如何한 關係가 有함을 云하얏습니다. 爲先 新舊約 全書를 通하여 靈魂不滅을 여러 가지로 証明했습니다. 例컨대 엘니야 에룩과 갓흔 人은 上帝에게로 歸去하얏습니다. 엘니야난 天으로 火車가 來迎하여 다려 갔다 잇습니다. 此난 卽 神活에 不過할는지도 未知이나 如何間 當時 猶太人잇슴을 確信한 証據요. 또 新約全書에 와서도 如此한말이 만이 잇습니다. 더 有名한 요한은 天國에서 死한 라사로를 蘇生케 한 이야기도 잇습니다. 또난 基督自身은 再生하얏습니다. 如何한 形體로 다시 사랏 난지 肉體 그대로 사랏는지 或은 靈體로 사랏난지난 우리가 未解하나 如何間基督의 眞體난 그 肉體의 死로 終한 것이 아니요. 基督의 精神 基督의 永遠의 生命은 此生活의 後에도 實上으로 存在하여 잇슴을 當時弟子를 이 確信하는 바입니다. 基督教徒의 靈魂不滅의 証據난 此로써 充分한줄노 思합니다. 聖書로써 充分한 証據가 됩니다. 그러나 此世에난 聖書의 証據로한 不滿하고 其以外의 事實노 研究하고자 하난 人도 또한 多數합니다.

二

以上에 述한것을 注意하난 人은 生命學者 卽 心靈學者올시다. 特히 心象의 研究 卽 心의 現象을 研究함이 漸次로 盛히되야 此方面으로 靈魂不滅의 証據를 立코자도 합니다. 此心靈學을 研究하난 者中에도 無識輩와 迷信者도 多數한 同時에 今日에 第一流의 思想家 科學者들도 또 多數히 網羅되어잇습니다. 例컨대 英吉利에 高名한 싸윈과 其히 進化論을 同時에 發見한 有名한 웰스 博士 바민함大學總長오리바로-피 또난 쿨뫼세敎授等有名한 學者들도 心象研究에 信賴를 맞앗든 人들입니다. 故므로 우리난 今日에 流行하난 心象研究나 心靈學을 無視하여 靈魂不滅을 論할 必要가 無합니다. 如何間人의 靈魂不滅을 確信하여 人生에 對한 希望이 確實히 잇서 每日生活을 喜送하며 死를 喜로 迎함난 人이 잇다하면 此난 喜悅의 事입니다. 卽 此等人들은 此研究로 獎勵와 安慰를 得한 것입니다. 其次로난 科學的 証據라 할난지요. 如何間吾人의 周圍에 잇난 自然界의 現象에 每日吾人의 目擊하난 事實에 靈魂不滅이 多少間暗示되어낫 하나난 것갓습니다. 例컨대 夜가 盡하면 朝가 來합니다. 夜가 永遠히 繼續함은 안입니다. 반다시 溫明한 光이 來합니다. 또 夜間에 난잠니다. 그러나 永遠히 잠이 아니요. 잔뒤에난 반다시 醒합니다. 또 草木은 枯하얏다가 또 春이 來하면 葉이 出生하고 花가 發합니다. 이와 갓치 天地間에 目前에 現象을 차々로 推思하여보면 아모래도 死란 것이 最後最終의 것이 아니요. 死란 것은 一種의 休息인 듯합니다. 死後에난 生이 必有하

며 休息 後에난 活動이 必有하며 靜한 後에난 動함이 잇난 것이 原則입니다. 人類 歷史上으로 考察에 보면 各樣의 事件이 잇섯스나 其中第一 큰 事實은 死을시다. 國家도 死하며 古史도 死하며 大事件도 死하야 모든 것이 다 死에 歸하야 死로 繼續해오나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天地萬有와 및 人類歷史에 現出되야오난 事件은 하나도 死하고 마는 것도 업고 다 蘇生하야옴으로 生命에 生命이 連續되야 人類歷史난 卽 生命의 連續이되야 死난 終極이 업고 死의 後에난 復活이 잇스며 死의 後에난 更히 永遠히 生命이 有함을 科學的으로난 證明할 수 업스나 天地萬有의 現象은 此에 對하야 有利한 暗示를 多大히 與하얏도다. 基督教徒난 每春에 復活祭를 직힘니다. 이 復活祭난 卽 基督教의 復活를 祝하난 紀念이며 이 復活紀念은 맞치 自然界的 復活을 祝하난 時와 公교스럽게 暗合하얏스니 卽 天地萬物은 春을 만나 다시 蘇生하난 此時에 基督教徒는 基督의 復活을 祝하야 紀念하며 또 이난 基督教徒의 習慣뿐만 아니라 世界各國에 此와 類한 儀式이 多有합니다. 宗教的 儀式에 不過하지만은 한편으로난 天地萬有의 復活을 祝하난 紀念인 同時에 其中에 宗教的 意義가만이 包含되엿다 합니다. 世界人類間에 共通된 이 春祭란것은 何時의 暗示를 吾人의게 與하난 것인지 東西一般의 人類난이 短縮한 現世生命만을 滿足히녁이지 아니하고 다시 復活하야 永遠한 生命을 바라난 意로 이 儀式을 식히난 것이니 이는 곳 死後에 永遠의 生命의 凱旋이 잇는 勝利가 잇슴을 表象하는 儀式입니다. 또는 모든 人生들이 自己의 心에 要求로 魂의 要求로 氣分の 要求로 아모릭도 自己의 生命이 此世에 限한 것이 아닌 것을 確信함이 올시다. 그러나 此는 靈의 要求인 故로 心의 本能인 故로 證明하기난 不能하나 其要求를 無視할 수난 엄습니다. 아모던지 생각키난 自己난 決코 死치 아니한다고 합니다. 或時에난 何人의 葬式에 가서 볼 새에 생각키를 此人은 死하얏스나 그러나 自己난 死치 아니할줄노 思하야집니다. 何故로 如此한 思想이 起함닛가 此난 卽魂의 本質 又は 眞髓中에 死라는 것을 超越하는 觀念이 自初로 잇는 까닭입니다. 宗教上으로 言之면 人間의 魂의 本質은 出世할 時에 神으로부터 造함을 밋아서 神과 接觸될 새에는 永遠의 生命을 思慕하는 心이 自然히 生하는 것은 人間의 本性이오. 또 靈魂의 本質을 發揮하는 것이오. 또는 抑制하기도 不能한 것입니다. 그런 故로 無數의 人間은 自己들의 心靈의 要求에 從하야 靈魂不滅을 確信하는 것입니다.

三

그러나 多數한 人間들은 信키 不能하다 합니다. 靈魂不滅을 信하야 보앗스나 아모래도 理論으로 不합하야 무슨 碍障物이 압흘 가린 것 갓하야 靈魂不滅을 信할 수 업다고 하난 人이 多합니다. 그런 人中에난 科學者가 特히 多

하야 科學上으로 靈魂不滅을 證明할 수 업스며 또 더욱 進化論의 立場으로
는 靈魂不滅을 信치 못하겠다 하는 人도 또한 多하도다. 進化論은 靈魂不滅
에 對하야 二種의 反對說이 有한줄노 信하는 人이 多하나니 第一은 進化論
은 神의 觀念을 破壞하는 것이니 卽 神이 宇宙萬物을 創造한 것이 아니요.
또 神이 支配하는 것도 아니요. 天地萬有는 다만 進化하는 것인 故로 神의
觀念은 업는 것이오. 神의 觀念 卽 宇宙의 生命이란 觀念이 업는 同時에 到
底히 吾人의 生命이 永遠히 繼續됨을 證明할 수 업다 함이 卽 進化論이 靈
魂不滅論에 對하야 第一攻擊하는 것이오.

第二의 攻擊點은 進化論에 依하면 人間은 下等動物로부터 或은 下等生物
로 부터 漸次로 進化하야 된 것으로 안다. 그런즉 人生은 그리 貴重한 것이
아니며 初時에는 人生은 神이 直接으로 造한줄노 認定하든 것이 지금에는
下等生物로부터 漸次進化하야 現狀에 達한것인즉 人間의 品位는 墮落된것임
으로 人生만 萬有보다 特別히 永住할 수 잇슴은 不可能할 것이오. 人間도 또
한 自然界의 一種의 生物이며 他動物보다 特異할 것이 업스니 人間이 他動
物과 特異하지 못할 것이면 人間만의 生命이 不滅한다 꿈는 것은 決코 不可
하다하야 이것이 卽 進化論이 靈魂不滅에 對하야 第二의 反對攻擊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立場으로 見하면 進化論이란 것은 神의 觀念을 破壞하는
것이 아니요. 進化라는 것은 卽 方法입니다. 如何間宇宙의 大生命인 神은 天
地萬有을 支配합니다. 此를 創造한 것입니다. 創造란 것은 進化論에 依하면
進化論의 方法에 依하야 創造된 것이오. 進化方法發達의 順序로써 天地萬有
라는 것은 其大生命에게 支配되는 것으로 認합니다. 그럼으로 進化論을 受入
한다고 만다시 神의 根本觀念은 破壞하는 것은 아닙니다. 今日에 進化論者中
에도 熱心の 有神論者도 不尠합니다. 現代와 갓치 科學者中에서도 有神論者
를 볼 時代은 無헛습니다. 여러분은 進化論을 認定하는 同時에 이 進化의 現
象을 活躍하는 根本되는 神의 力神의 大生命을 否認할 必要강 머난 것이오.
神의 長時代를 通하야 차々로 進化發達된 筋途를 通하야 宇宙人類을 指導한
다는 것을 생각할 時에 도로혀 우리는 神의 神秘을 覺得할 수 맞게 업습니
다. 余는 進化論처럼 神의 觀念을 現代人에게 明白히 表示하는 學說은 無한
줄노 思합니다. 此學說은 卽 大地間에 生命이 滿溢해 잇다는 眞理를 明白히
表顧한 學說이며 此學說처럼 神은 死한 神이 아니요. 活生한 神인것을 表示
하는 學說은 업습니다. 此眞理를 認함에 對하야 吾人은 宇宙 모든 곳에 生命
이 活躍하야잇습니다. 仰하야 天上을 見하면 日月星辰에도 進化의 規則이 行
해잇습니다. 그 中에 사라계신 神의 法則이 되입니다. 또한 俯하야 地을 見
하면 禽獸魚蟲 또한 人類社會에도 進化法則을 볼 수 잇스며 創造發展의 法

則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進化論은 神의 思想을 破壞함이 안이요. 도
로혀 神의 思想을 豊富케 하며 神의 表現 神의 典型을 쏘는 內容을 表現식
히난 것입니다. 또 人間進化論에 對하여서도 亦然합니다. 聖書에 記錄된 古
代思想에 依하건대 人은 土로써 造한바요. 塵으로써 神의 造한것이라난 說이
잇스나 此난 卽 造作한 話인 古談에 不過하나 人間은 天地萬有의 進化의 絶
頂에 잇슴을 示하얏스며 植物及動物間에 漸次로 發達되야온바 流來한바 向
上해온바의 生命이 되야 次第로 人間이 되야 最後의 頂上에 人間이 된 것임
니다. 進化論에 依하드래도 人間은 墮落된 것이 아니요. 向上해온 것입니다.
人間의 向上된 것은 進化論上으로 証明할 수 잇슴으로 如此한 進化論은 神
의 觀念쏘는 人類의 向上에 對하야 多大한 光明한 暗示을 밝히한 學說이요.
此世에 多數의 科學者들과 갓치 悲觀의 學說로써 此를 承認하지 아니합니다.
(續)